

## 투데이

“100만원짜리 티켓 사고 주차장에서 20~30분 걸어와라?”  
“대회 겨우 50일 남았는데 쿨센터 5시간동안 연결 안되더라”

## 영암 F1대회 홈페이지 ‘시끌’

조직위 “셔틀버스 투입, 한달전부터 상담원 대거 운영”

F1(포뮬러원) 코리아 그랑프리를 50여일 앞두고 티켓 구매자들의 불만이 잇따르면서 대회 홈페이지(www.koreangp.kr)가 시끄러운 것이다.

구매자들의 불만 사항은 크게 두 가지로, 하나는 주최측이 온라인을 통해 선착순으로 배포하는 무료 주차권 문제다. 46만~89만원에 이르는 ‘메인 그랜드스탠드’ 티켓을 구매했는데도 좌석 가까이에 주차하기는 커녕, 도보로 20분 가까이 걸리는 곳에 주차를 해야하는데, 그나마도 온라인에서 선착순으로 주차권을 배부 받아야 하는 탓에 불만의 글들이 쇄도하고 있다.

천봉인이라는 이름으로 글을 올린 네이티즌은 “100만원 가까운 티켓비를 내고 20~30분을 걸어 가야하는 것은 문제”라며 “차에 자진거리도 싫어 가야 할 판”이라고 비꼬았고, 박정수씨는 “(비싼 티켓을 구입한) 메인 그랜드스탠드 관람객들에 대한 우대가 없을 거라면 티켓가격을 전체 통일시키지, 왜 더 비싸게 받는 거냐”고 불만을 털어놨다.

대회 조직위원회는 대회기간 중 티켓 구매자들을 위해 7개의 주차 공간(1만3000면) 가운데 메인그랜드스탠드에서 도보로 10~20분 걸리는 곳에 위치한 P1·P2 등 2개의 공간(6300면)을 제공한다. 온라인에서 선착순으로 배포하고 토요일 4300면, 결승전이 열리는 날에는 2000면만 개방키로 했다. 나머지는 대회 관계자, 패독

클럽 등 VIP, 장애인·노약자 등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된다.

조직위측은 이와관련, ‘메인그랜드스탠드(1만6000석)를 비롯, 경주장 전체 좌석수만 11만석에 달하는 만큼 일부 관람객들에게만 주차를 허용하고 나머지 관람객들은 셔틀버스를 통해 수송하겠다’는 입장이다. 주차공간이 부족한데다, 11만명이 한꺼번에 몰릴 경우 교통 대란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또 다른 하나는 쿨센터(1588-3448) 운영 문제로, 관람객이 쿨센터를 통해 F1대회와 관련한 교통·숙박 등의 정보를 제공받도록 홍보하면서도 정작 연결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일부 네이티즌은 “5시간동안 연결이 안된다”고 비판하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이는 조직위원회가 고작 3명의 상담자를 두고 쿨센터를 운영하면

서 빚어진 일로, 조직위는 “대회를 한 달여 앞두고 20명 가량의 전문 상담원을 채용해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결승전 당일 비가 오면서 대회 운영상 종족적 문제점이 드러났는데도, 올해 대회도 이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제호 전남도 행정부지사는 이날 도청 서재필실에서 열린 ‘F1 추진상황 보고회’에서 준비 상황을 보고받은 뒤 “지난해 비가 오면서 주차장에 물이 고이고 땅이 질퍽이는가 하면, 교통 정체가 빚어지는 등 문제가 많았다”면서 “그런데도 올해 대회에 비가 올 경우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등에 대한 검토가 없다”고 지적했다.

/김지율기자 dok2000@kwangju.co.kr



‘아시아 문화포럼’ 개막  
다. 강운태 광주시장(왼쪽)과 이병훈 아시아문화전당 추진위원장이 개회식에 참석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 “노태우 망언·안현태 안장 법적 대응하겠다”

### 5·18등재위 “사과·철회 없을 땐 소송”

‘5·18민주화운동기록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추진위원회(이하 등재추진위)’가 22일 “노태우씨는 망언과 안현태씨의 국립묘지 안장은 시작일 뿐이며 향후 이에 대한 사과나 철회가 없다면 법적인 조치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등재추진위는 향후 일정기간 합당한 조치가 없을 경우 노씨에 대해서는 명예훼손 소송 및 자서전 배포금지 처분 신청을 하고, 안씨 국립묘지 안장 문제는 국가보훈처를 상대로 안장부

다”고 강조했다.

등재추진위는 이어 “5·18 유혈진압의 진법으로서 평생을 감옥에서 반성문과 참회록을 써도 모자랄 판에 책임회피와 변명을 넘어 진실을 호도하고 역사를 왜곡하는 노씨의 망언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이번 일을 간과할 경우 5·18 공인들의 역사왜곡과 국립묘지 안장이 줄을 잊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등재추진위는 지난 10일 안씨의 국립묘지 안장에 항의하기 위해 국가보훈처를 방문한 바 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 F1 경주장 인근 한옥호텔 ‘영산재’ 내달 개관



F1(포뮬러원) 국제자동차경주장 인근에 고급 한옥호텔이 문을 연다. 전남개발공사는 22일

영암군 삼호읍 나불리 ‘영산호국민관광단지’ 내에 건립중인 한옥호텔 ‘영산재(榮山齋)’가 다음

달 22일 개관식을 갖는다고 밝혔다.

영산재는 영산호 주변 1만8579㎡의 부지에 연면적 3200㎡ 규모로 건립된 대규모 한옥 호텔 단지로, F1 대회 기간 관람객들의 고급 숙박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연립형(11평형 7실·13평형 7실)과 독립형 단층형(15평형 2실·18평형 2실), 독립형 복층(31평형 3실) 등 한옥 21개에 31개의 방을 갖췄다.

전남개발공사는 직영하는 영산재는 내부를 고급호텔 수준으로 마감하면서도 한옥 정자와 담 등 전통 양식의 조경시설을 도입, 한옥의 멋을 한껏 강조한 것이 특징이다. 단지 내 한식당·체험관·세미나실·전통 혼례식장 등 다양한 부대시설도 마련했다. /김지율기자 dok2000@kwangju.co.kr

## 서구청 신청사 25일 준공



서구청 신청사가 오는 25일 준공된다. 서구청은 22일 “기존의 청사 앞인 능성동 옛 조달청과 전남소방본부 부지에 건립중인 신청사가 준공됨에 따라 내달 1일 기획실 등을 시작으로 9일까지 24개 부서별로 이전작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민원업무가 가장 적은 추석연휴를 이용 정보통신장비를 이설하고 연휴가 끝나는 14일부터 신청사에서 업무에 들어갈 예정이다.

지난 2009년 3월 착공한 서구 신청

## 내년부터 가축분뇨·하수오니 해양배출 금지

내년부터 하수오니와 가축분뇨의 해양 배출이 전면 금지된다. 국토해양부는 바다에 버려지는 육상폐기물을 감축을 위해 이같은 내용을 해양환경관리법 시행 규칙 개정안에 반영해 입법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하수를 처리하고 남은 찌꺼기인 하수오니(汚泥-슬러지)와 가축분뇨는 내년부터 해양 배출이 금지된다. 2013년부터는 음식물류폐기물 폐수도 바다에 버릴 수 없다.

이와 함께 국제법에서 규정하는 ‘육상폐기물의 육상 처리 원칙’을 이행하기 위해 육상폐기물을 바다에 버리기 전 육상 처리가 가능한지를 의무적으로 검토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육상폐기물을 바다에 배출하려고 하는 사람은 해당 폐기물이 육상 처리가 가능한지에 대해 검토한 결과를 해당 지역 해양경찰서장에게 제출하고, 해양경찰서장은 이를 인터넷 등을 통해 공개해야 한다. /연합뉴스

## 시 직속·출연기관 생활정보 한곳에

## 어린이집 급식 재료 공동구매 추진

광주시 각 직속기관과 공사·공단, 출연기관에 흘러져 있는 생활정보를 한 곳에서 볼 수 있게 된다.

22일

광주발전연구원에 따르면 시 직속기관 11개와 공사·공단, 출연기관 22개 등 모두 33개 기관에서 작성하는 채용, 전시, 공연 등 생활 일정형 정보를 한 곳에서 볼 수 있도록 다음달 중순 ‘광주 인포메이션’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한다.

광주발전연구원은 이를 위해 이번 주 내 각 기관 계자가 참여하는 운영위원회와 실무위원회를 구성한 뒤 다음달 초 강운태 광주시장과 각 기관장이 참여한 가운데 광주 인포메이션 인터넷 홈페이지를 시연하기로 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 뉴스 브리핑

## 시 직속·출연기관 생활정보 한곳에

## 어린이집 급식 재료 공동구매 추진

광주시 각 직속기관과 공사·공단, 출연기관에 흘러져 있는 생활정보를 한 곳에서 볼 수 있게 된다.

22일

광주발전연구원에 따르면 시 직속기관 11개와 공사·공단, 출연기관 22개 등 모두 33개 기관에서 작성하는 채용, 전시, 공연 등 생활 일정형 정보를 한 곳에서 볼 수 있도록 다음달 중순 ‘광주 인포메이션’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한다.

광주발전연구원은 이를 위해 이번 주 내 각 기관 계자가 참여하는 운영위원회와 실무위원회를 구성한 뒤 다음달 초 강운태 광주시장과 각 기관장이 참여한 가운데 광주 인포메이션 인터넷 홈페이지를 시연하기로 했다.

## 문화·예술 예산 5조원 확보 추진

정부가 어린이집 급식 재료의 공동구매를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어린이집 급식재료 공동구매’

지침을 마련했으며 이에 따라 올해 안에 시·군·구별로 실제 공동구매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도하겠다고 22일 밝혔다.

22일

국회에서

22일